

주기도문의 사동문 구절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전혜영*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주기도문 번역에 나타난 사동문 구절을 대상으로 국어학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이 구절에 대한 교인들의 의미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문으로 공식적인 예배에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암송하게 되는 기도문이다. 그런데 회중이 함께 신앙고백을 하는 공적 예배에서도 개인에 따라 암송하는 기도문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라고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대개’를 빼고 암송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절의 경우에도 ‘오늘’이 아닌 ‘오늘날’로 암송하는 사람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기도문의 암송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13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개역개정』)의 경우에 교인들이 여러 형태로 암송하고 있고 국어학적으로 볼 때 각 형태에 대한 의미가 다른 것이라는 점, 이에 대한 의미 해석도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개’라는 표현의 유무나 ‘오늘’과 ‘오늘날’의 선택에서 발생하는 의미 차이는 신앙적 이해에 차이를 줄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의 대상인 사동문 구절의 경우, 인간이 겪게 되는 시험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차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주기도문에 대한 신학적 연구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의 주기도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주기도문의 구성과 이에 따르는 각 표현들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 한편 주기도문의 번역상의 문제를 논한 연구로는 김창락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학 의미·화용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hyjun@ewha.ac.kr.

(1992), 김창락(2001)과 나채운(2001), 민영진(2001)을 들 수 있는데, 이 논문들은 주기도문의 번역과정에서 한국어의 문법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며 어휘, 표현상 부적당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주기도문 번역 문제를 다룬 박창해(1992)에서는 통어구조를 중심으로 어법상의 문제와 문체의 구조를 다루었고, 정길남(1994)에서는 초기 우리말성서(1884년 로스역)에서부터 지금의 성서와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주기도문의 표현구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구절간 비교 논의를 통해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기도문 중 한 구절에 해당하는 사동문을 대상으로 국어학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는 주기도문의 신학적인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기도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어 표현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사동문 구절이 번역본에 따라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확연한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 구절이 한국어 사동문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 특성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³⁾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교인들의 실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교인들이 자신이 암송한 구절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각자의 신앙적 이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마태복음 6:13 사동문 구절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주기도문의 구성은 하나님 부름, 여섯 개의 간구, 송영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둘째 부분에 나오는 여섯 개의 간구 중 제6 간구의

-
- 1) 마 6:9-13의 주기도문과 눅 11:2-4에 있는 주기도문이 신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 중 어떤 것이 더 순수한 것인지, 더 오래된 것인지, 두 가지 형태를 산출해 낸 공동체의 정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하고 있으며, 주기도문의 표현들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중석, “주기도문”, 『신학사상』 62 (1988), 682-713 참조.
 - 2)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한국어 표현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부름말 ‘아버지여’에서 호격조사가 붙은 것은 ‘아버지’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나라이’는 조사를 바꾸어 ‘나라가’로 번역되어야 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은 ‘오늘’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 3) 여기서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대상으로 하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비교 논의를 하지 않는다.

구절을 대상으로 하고⁴⁾, 번역본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검토하면서 『개역개정』(1998)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준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⁵⁾

2.1. 피사동주에 대한 검토

사동문은 사동주(causer)가 피사동주(causee)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구문을 말한다. 한국어의 사동문은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동접미사에 의한 사동이며, 다른 하나는 ‘-게 하다’ 형식으로 표현되는 통사적 사동이다.⁶⁾ 한국어 사동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형식의 사동에 대해 동일한 기저구조를 가진 동의문으로 볼 수 있는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사동접미사 사동인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는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옷을 입히는 행위를 하는 ‘직접사동’의 의미와 아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하는 ‘간접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통사적 사동인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는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옷을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아이가 옷을 입도록 하는 ‘간접사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면에서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동문 형식에 따라 사동접미사 사동은 직접사동, ‘-게 하다’ 사동은 간접사동이라는 식으로 일정하게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⁷⁾

4) 주기도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송성진, “주기도문의 신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78 (2013), 83 참조.

5) 주기도문의 번역본에 따라 다른 간구에서도 ‘-게 하다’ 사동문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동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 차이 문제가 중요한 제6 간구에 나오는 사동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간구에 나타난 사동문으로 ‘이름이 거룩하게 하다’를 다룬 박창해, “<주기도문>의 통어구조-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성서한국』 38:1 (1992), 10-24에서 이 구절의 사역화 과정에 대한 설명 참조.

6) 두 가지 사동을 일컫는 이름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동접사로 표현되는 것은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으로, ‘-게 하다’로 표현되는 것은 ‘구문형 사동문’ 또는 ‘통사적 사동’으로 칭하고 있다. 또 길이를 기준으로 ‘단형사동’, ‘장형사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박정운, “한국어 사동 구문의 의미-원형의미론적 접근”, 『언어』 28:3 (2003), 346 참조.

7) ‘-게 하다’ 사동문은 일반적으로 ‘간접사동’만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타다’ 동사를 예로 들면, ‘할머니를 팔을 붙잡아 타게 하다.’에서는 직접사동의 의미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차례로 버스를 타게 하다.’의 경우, 간접사동의 의미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동문 형식에 따라 접미사동은 직접사동, ‘-게 하다’ 사동은 간접사동이라는 식으로 일정하게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형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한국어 사동구문의 의미를 논한 박정운(2003)에 의하면 두 가지 사동문 형식 모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나, 나타내고자 하는 사동 사건이 원형적인 사동개념에 가까

그런데 주기도문의 번역본에서 마태복음 6:13 사동문 구절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이 아니라 통사사동인 ‘-게 하다’ 사동문으로 나타난다. 이 사동문 구절에서 사동주는 누구인가? 이 구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나 주기도문 전체로 볼 때 부름말에 나타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동주의 행위에 피사동주로서 사동행위의 영향을 받는 존재는 인간인 ‘우리’이다. 그리고 사동주인 하나님이 피사동주인 인간에게 하고자 하는 사동행위는 ‘시험에 들게 하다’(『개역개정』)이다. 이에 따라 주기도문의 사동문 구절에 나타난 사동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주기도문의 사동문 구조

[사동주: 하나님] - [피사동주: 우리] - [피사동행위: 시험에 들게 하다]

먼저, 이 절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피사동주의 형태에 따른 의미 문제이다. 번역 성서를 비교해 보면 피사동주에 해당하는 ‘우리’ 다음에 사용된 조사는 ‘우리가’와 ‘우리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사동주에 사용된 조사의 차이가 통사·의미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와 관련하여 국어학적 검토가 필요하다.⁸⁾

한국어의 ‘-게 하다’ 사동문에서는 피사동주가 다음과 같이 여격, 주격, 대격으로 실현된다.⁹⁾

- (2) ㄱ.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 ㄴ. 엄마가 아이가 책을 읽게 하였다.
- ㄷ. 엄마가 아이를 책을 읽게 하였다.

그러면 격표지가 다른 이 세 가지 문장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울수록 단형사동에 의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또한 김운신(2012)에서는 어휘의미론적 입장에서 사동사를 중심으로 사동구성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를 다루면서 사동행위의 직·간접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 8) 1884년 로스 역에서는 부사격조사 ‘-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후에는 주격조사 ‘-가’와 목적격조사 ‘-를’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 9) 한국어 통사론 논의에서 이 통사사동이 피사동주의 격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저구조를 갖는가, 피사동주의 격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통사구조를 갖는가가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졌다. 김영희, “-게 하- 사동구문의 세 유형”, 『어문학』 54 (1993), 89-120에서는 세 사동문이 서로 다른 기저구조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았으며, 사동문의 격표지와 상관없이 모두 복문구조로 보았다. 박소영, “한국어 통사사동의 세 유형”, 『현대문법연구』 74 (2013), 59-76에서 피사동주의 세 가지 격 표지 유형과 관련하여 동일구조설과 이형구조설의 견해를 대비한 논의를 볼 수 있다.

‘-게 하다’ 구문으로 표현되는 사동문에 나타나는 피사동주 격표지의 차이를 통사적으로 분석한 이숙(2007)에 의하면 여격 사동문은 주격과 대격 사동문과 통사·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격 피사동주 구문은 비유정성 피사동주가 오는 것과 비통제성 자질을 가진 하위동사가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주격과 대격 사동문은 피사동주에 [+유정성] 제약이나 하위동사에 [+통제성]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 예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격이 사용된 (3)에서 ‘차’는 비유정성 피사동주이므로 제약이 발생했고, (4)에서 ‘죽다’는 비통제성 자질을 가진 동사이므로 제약이 있다. 이와 달리 (5)의 주격/대격 피사동주는 [-유정성] 자질이 가능하고 [-통제성] 동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¹⁰⁾

- (3) ㄱ. *인수가 차에게 앞으로 가게 하였다.
 ㄴ. 인수가 차가/를 앞으로 가게 하였다.
- (4) ㄱ. *인수가 순이에게 죽게 하였다.
 ㄴ. 인수가 순이가/를 죽게 하였다.
- (5) ㄱ. 인수가 야채가/를 썩게 하였다.
 ㄴ. 인수가 순이가/를 미끄러지게 했다.

그렇다면 주격과 대격 피사동주 구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통사적으로 볼 때, 주격과 대격 사동문은 하위절로 기술되는 사건이나 상태를 상위절 동작주가 야기하는 구문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위절의 주어 위치에서 생성된 피사동주가 그대로 주격표지로 나타나는 구문이 주격 사동문이고, 하위동사구와 상위동사의 통합에 의한 단일형 변형이 일어나서 하위절의 주어가 복합동사의 목적어로 실현되는 구문이 대격 사동문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숙(2007)은 의미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를 보여준다. 바로 동사구 통합에 의한 단일절로의 변형은 상위동사 ‘하다’의 동작주가 하위절 사건에 실재 동작주로서 직접 관여한다는 담화상의 함의가 전제된다는 점이다. 즉 대격표지가 있는 사동문은 사동주가 하위절로 기술되는 사건이나 상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자질을 나타내기 위해 실행되고, 주격표지일 경우 사동주가 하위절로 기술되는 사건을 방치한다는 의미적 내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음 예문 (6)에서 격표지에 따른 의미 차이를 볼 수 있다. (6ㄱ)의 주격표지 구문은 순이가 경찰에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고,

10) 이숙, “-게 하다’ 사동구문의 통사적 분석”, 『語文學論叢』 26 (2007), 298의 예문(18-20)을 가져옴.

(6ㄴ)의 대격표지 구문에서는 인수가 도망가는 순이를 붙잡아 경찰에 잡히도록 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 (6) ㄱ. 인수가 **순이가** 경찰에 잡히게 하였다.
- ㄴ. 인수가 **순이를** 경찰에 잡히게 하였다.¹¹⁾

번역본 성서에는 마태복음 6:13에 여격 피사동주 ‘우리에게’가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와 ‘우리들’의 의미 차이를 한국어의 통사적 분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들’이라는 대격표지 피사동주 구문이 사용된 경우, ‘우리가’가 사용된 주격표지 피사동주 구문에 비해 사동주인 ‘하나님’이 하위절로 기술되는 사건이나 상태, 즉 ‘시험에 들다’ 혹은 ‘시험에 들지 않다’라는 사동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동주가 하위절로 기술되는 사건이나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동행위에 직접 관여함을 의미하게 된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시험에 드는’ 사건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2.2. 사동행위의 표현 문제

사동행위를 나타내는 표현 문제는 문장의 구조를 논하는 문제와는 별개이지만 사동행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또한 이 표현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번역본을 살펴보면 ‘시험에 들다, 유감에 빠지다, 유혹에 빠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어 ‘페이라스모스(peirasmos)’를 번역한 한국어 단어가 무엇이나 하는 것인데, 번역자들의 해석에 따라 ‘시험’, ‘유혹’, ‘유감’ 등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것이다. ‘시험’과 ‘유혹’이 교체되다가 현대역으로 오면 ‘시험’으로 정해지고 있다. 영어로 ‘temptation’에 해당하느냐, ‘test’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때 우리말 일상용어로 ‘시험(試驗)’은 주로 ‘test’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채운(2001)과 김영봉(2001)에서는 『개역개정』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단어를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영봉(2001)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오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11) Ibid., 305의 예문(36)을 인용함.

를 유혹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유혹을 견뎌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소서.”라는 기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채운(2001)에서는 이 구절과 관련하여 한국어 ‘시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의 일상적 표현으로 볼 때 ‘시험’은 원문의 ‘페이라스모스’와 다르다는 점에서 ‘유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¹²⁾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민영진(2001)에서는 국어사전에 근거하여 ‘시험’의 부당함을 논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한국 교회가 한 세기 이상을 기도하면서 ‘시험’이라는 말에 독특한 의미와 뉘앙스를 주어왔고, 기도를 한 이들이 그 독특한 의미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람의 됬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시험에 들다’라는 표현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어 표현상 주기도문의 ‘시험’과 같은 의미가 이미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시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주기도문의 ‘시험에 들다’가 아래의 용법 (7ㄷ)에서 발견된다. ¹³⁾

(7) 명사 ‘시험’

ㄱ.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 시험 과목/시험에 응시하다/시험에 떨어지다/시험에 합격하다/시험을 치다.

ㄴ.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 참치 시험 조업/시험 운전.

ㄷ. 사람의 됬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 시험에 들다/시험에 빠지게 하다.

한편 천주교의 성서 번역본에서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와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

12) 나채운, “주기도문의 번역상의 문제점”, 『성경원문연구』 8 (2001), 31-43에 의하면 그 유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립적인 두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가 가능하지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마귀의 행위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약 1:13)를 들어 이 구절을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는 느낌'을 의미하는 '유감'이라는 단어는 '시험'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이 '유감'이라는 단어가 이후에 '유혹'으로 변화하는데, 이 단어의 번역을 통해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번역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이나 '유혹'이나 단어의 번역에 대한 논란은 신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논의임에 분명하나 한국어 표현상의 문제로만 본다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¹⁴⁾

2.3. '-게 하다' 사동문의 구조와 의미 문제

『개역개정』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이전 번역본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빠져들지) 않게 하시고'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등으로 나타난다.¹⁵⁾

- (8) 가. 우리로 시험에 드지안케 하시며(1887)
- 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1892)
- 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1900)
- 르.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1906)
- ㅁ.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말게 하시고(1910)
- ㅂ.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1936)
- ㅅ.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말게하시고(1939)
- ㅇ. 또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지말게하시고(1965)
- 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않게 하시고(1971)
- ㅊ. 우리가 시험에 들지않게하시고(1977)
- ㅋ.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마시고(1993)
- 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1998)

이 구절에서 사동사의 표현 차이를 제외하고 통사적인 구조만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14) 기독교 사회에서 오랫동안 다른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기독교인만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로는 '교제'의 의미로 '교통(交通)'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정길남, "주기도문에 쓰인 우리말 연구", 『국어국문학』 111 (1994), 101.

15) 정길남, "주기도문에 쓰인 우리말 연구", 99에 제시된 자료를 연차적으로 제시하되, 직전 번역과 형태적 변화가 없는 번역은 제외하고 마지막에 『개역개정』의 자료를 추가한 것이다. 간행년도에 따른 문헌명과 번역자, 소장지에 대한 정보는 이 논문 87-88 참조.

(9) 주기도문 사동문의 통사구조

- ㄱ. (하나님) [우리가/를 V-지 않] -게 하다
- ㄴ. (하나님) [우리가/를 V-지 말] -게 하다
- ㄷ. (하나님) [우리를 V-게 하] -지 말다

여기서 먼저 검토할 것은 부정문 형태인 ‘-지 않다’와 ‘-지 말다’의 의미 차이이다. 한국어의 부정문 유형을 보면 ‘-지 않다’, ‘-지 못하다’ 부정문은 서술법, 의문법에만 허용되고, 명령법과 청유법에는 제약을 보인다. 반면 ‘-지 말다’ 부정문은 명령법과 청유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¹⁶⁾

(10) ㄱ. *너는 집에 가지 않아라./ *우리 집에 가지 않습니다.

- ㄴ. *너는 집에 가지 못 해라./ *우리 집에 가지 못 합시다.
- ㄷ. 너는 집에 가지 말아라./ 우리 집에 가지 맙시다.

도입기 번역 성서에 ‘우리가 -지 말게’ 형태가 전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정착기에 이르러 ‘우리를 -지 않게’로 자리 잡게 된 변화에 대해 정길남(1994)에서는 명령법과 청유법에만 허용되는 ‘말다’는 주어가 1인칭일 경우에 결합이 불가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지 말다’ 구문의 경우 표층에는 명령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의한 명령’이 내포되고 있어 절대자에게 일종의 명령과 같은 의뢰함이 나타난 통사구조이기 때문에 ‘-가’가 결합된 주어인 ‘우리가’는 2인칭에 사용 가능한 ‘말게’ 서술어와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착기에 오면 조사가 ‘-를’로 바뀌고 ‘-지 않다’로 바뀐 것이라고 보았다. 번역 성서의 부정문 형태와 조사의 호응관계를 잘 설명해 준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길남(1994)에서는 이 구절이 사동문 형식으로서 통사구조가 다르고 그로 인해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번역본들에 나타난 사동문 구절의 통사구조 3유형을 의미구조로 나타내 보면 다음 (11)과 같이 동사에 ‘-게 하-’가 먼저 결합되고 뒤에 부정형(NEG)이 오는 유형과 동사의 부정형 다음에 ‘-게 하-’가 결합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¹⁷⁾

(11) 주기도문 사동문 구절의 의미구조

- ㄱ. [(하나님) 우리-를 V] -게 하- NEG
- ㄴ. [(하나님) 우리-를 V- NEG] -게 하다

16)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9), 366-367 참조.

17)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제외하고 사동문의 구조면에서 본다면 ‘-지 않게 하다’와 ‘-지 말게 하다’를 [V-지 NEG]-게 하다’ 구조로 묶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2.의 논의대로 사동행위 동사를 ‘시험에 들다’로 보게 되면,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다’가 되고 다른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말게) 하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번역을 통해 이 구절의 의미구조가 달라지고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미치는 사동행위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의미 차이의 발생은 곧 사동주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동문의 번역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분’으로서 상반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김창락(2001)에서 이 구절의 번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미 차이를 인식한 번역자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이 구절의 원문의 구조는 ‘2인칭 사역동사 부정 명령문 + 우리들 + 들다 + 시험에’이고 이를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이끌지/시험에 몰아넣지 마십시오.”이지만, 원문의 형식을 고수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표현이라는 것이다. ‘into temptation’이라는 어구 안에 ‘시험에 빠지다/시험에 들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데 역점을 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들지 않게 하시오며”로 번역해야 하며, 하나님의 행위에 역점을 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로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시험에 들지 말게/않게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감독/작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고려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시험에 들게 하지 않다’를 명령문으로 바꾸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가 되며, 이것을 비는 말로 바꾸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가 된다. 즉 시험에 들도록 작용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는데, 원문의 표현 자체를 고려하면 이 번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번역 성서의 주기도문 사동문을 비교해보면 의미구조 면에서 『표준』(1993)과 『개역개정』(1998)에서는 (11ㄱ)의 의미구조로 번역되었고, 그 이전의 번역 성서에서는 이와 상반된 (11ㄴ)의 의미구조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영진(2001)은 번역이론에 근거하여 자료언어(그리스어)로 쓰인 본문의 메시지를 수용언어인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자료언어의 메

18) 영어성서 번역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리하여 NIV, ESV에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으로 번역되어 있고, NKJV나 NASB에서는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 인터넷 자료 참조.
http://www.bskorea.or.kr/infobank/foreignSearch/bibsearch_main.aspx.

시지에 가장 가깝고 자연스러운 대응표현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한다.¹⁹⁾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본문의 의미라고 본다면 이 구절에서도 원문의 의미를 바로 전달하는 데에 역점을 둔 번역이 선택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시험에 들게 하다’ 구조를 반영하되 이러한 사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이 어법상으로도 무리 없는 번역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나 교회공동체의 신앙을 고려해서 상반된 의미구조 중 하나의 번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며 그렇게 하여 일치된 번역본으로 주기도문 암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마태복음 6:13 사동문 구절의 암송 형태와 의미 이해

번역된 주기도문에 서로 상반된 의미의 사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교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에서는 교인들이 주기도문의 사동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 구절을 어떻게 암송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교인들의 암송 상황과 그 의미 이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2016. 7. 10. ~ 2016. 7. 20.이고, 전체 응답자 수는 총 13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38명(28.8%), 여자 91명(68.9%), 무응답 3명(2.3%)이었고, 연령별로는 10대 5명(3.8%), 20대 39명(29.5%), 30대 20명(15.2%), 40대 24명(18.2%), 50대 19명(14.4%), 60대 15명(11.4%), 70대 8명(6.1%)이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가 70명(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27명(20.5%), 고등학교 20명(15.2%), 중학교 6명(4.5%), 초등학교 5명(3.8%), 무응답 4명(3.0%)으로 조사되었다. 인적 사항이 설문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본고의 조사 목표가 인적 사항에 따른 결과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소를 통계 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²⁰⁾

19) 나이다의 두 가지 번역 원칙은 ‘단어 대 단어’의 접근방식을 취하는 형식일치번역과 ‘의미 대 의미’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내용동등성 번역이다. 이 구절을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가 된다고 한다. 민영진, “현대의 번역이론에서 본 주기도 번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8 (2001), 81-83 참조.

20) 또 이번 조사에서 설문지 응답자의 출석교회가 어떤 교파인지 묻는 항목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설문 참여자 중 응답자의 교회는 교파가 다른 10개 교회 이상이었었는데, 이번 조사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교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

3.1. 암송 구절의 형태와 의미 이해

실제로 이 구절을 어떻게 암송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에게 먼저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한 다음 자신이 외우고 있는 구절을 표시하게 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구절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게 하고, 문항에 없는 다른 형태를 암송할 경우 따로 적을 수 있게 하였다.

설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교인들은 일치된 형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상의 형태로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의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32명 중 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라고 응답한 사람이 14명(10.6%), ②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를 응답한 사람이 21명(15.9%), ③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응답한 사람이 95명(71.9%)이었다.²¹⁾ 전체적으로 ③번 형태로 암송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전히 다른 형식으로 암송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²²⁾ 이를 통해 새로운 공역이 이루어져도 교회 현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암송 구절에 대하여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1>에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 선택한 응답자가 63명(47.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②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으로 응답자가 52명(39.4%), ③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으로 응답한 사람이 17명(12.9%)으로 나타났다. 의미 이해에 대한 결과를 보면 흥미롭게도 암송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도 의미 해석은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시험에 들게 하다’ 사동구문을 선택한 사람이 그 구절의 의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다’ 사동문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다’ 사동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형태도 다양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암송구절 문항에서 ③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응

적사항에 초점을 둔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 항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21) ③번 형태로 암송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개역개정』 이후 현재 통일된 주기도문이 ③번 형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22) 다르게 암송하는 예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쓴 응답자의 경우, 어미 부분에 차이가 있으나 사동의 의미구조가 ‘들게 하다’이므로 ③과 동일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답한 사람이 95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를 ③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각각의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선택했는가보다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한 사람이 두 번째 질문에 어떤 문항을 선택했는지, 즉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교차비교통계분석(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1>

<표 1> 암송 구절과 이해하고 있는 의미 간 상관관계

			1) 응답자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구절				
			① “들지 않게 하시옵고”	② “들지 말게 하시옵고”	③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타 ²³⁾	전체
2)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 구절 의미	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	n	9	7	45	2	63
		%	64.3	33.3	47.4	100.0	47.7
	②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	n	5	13	34	0	52
		%	35.7	61.9	35.8	0.0	39.4
	③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	n	0	1	16	0	17
		%	0.0	4.8	16.8	0.0	12.9
	전체	n	14	21	95	2	132
		%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1.008, df=6, p>0.05 (p=0.088)$

참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구절과 암송하는 표현에 대해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008, df=6, p>0.05$).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응답자들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구절의 표현과 그 구절의 의미 이해 간에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우고 있는 표현과 그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1>은 암송 구절과 이에

23) 기타 응답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등이 있었다.

대한 의미 이해는 일관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주기도문 암송 현장의 상황을 보면, 일치된 형태의 암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암송 형태에 대한 의미 이해도 문장의 의미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면에서 교회 현장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3.2. 암송 구절의 의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 응답자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문 암송 구절의 의미와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의미 중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을 선택한 사람이 평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을 선택하게 되는지 두 문항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교차비교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고),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문 암송 구절의 의미와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5.88$, $df=4$, $p<0.001$). 즉,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구절을 ①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역시 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8.3%). 또 주기도문 구절의 의미를 ②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역시 ②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으로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5.0%), 암송하는 주기도문 구절을 ③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다수의 응답자는 ③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4.7%).

또한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문 암송 구절의 의미와 평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mbda=0.519$).²⁴⁾ 즉, 이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문 암송 구절의 의미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하

24) 통계적으로 람다(λ)는 변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0에서부터 1까지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 람다 계수가 0에서 0.1 미만이면 변인 간의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0.5에서 0.8 미만이면 변인들의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나온 $\lambda=0.519$ 는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말해준다. 최현철, 『사회통계방법론』(과주: 나남, 2010), 127.

나눔에 대한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교회 현장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2> 암송 구절의 의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간 상관관계

			2)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 구절 의미			
			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	②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	③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	전체
3) 응답자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	n	43	5	3	51
		%	68.3	9.6	17.6	38.6
	②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	n	6	39	3	48
		%	9.5	75.0	17.6	36.4
	③ 시험에 들게 하실 수 있는 분	n	14	8	11	33
		%	22.2	15.4	64.7	25.0
	전체	n	63	52	17	132
		%	100.0	100.0	100.0	100.0

$\chi^2=75.88, df=4, p<0.001, \lambda =0.519$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공적 예배에서 사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하고, 그 중에서 주기도문 번역에 나타난 사동문 구절을 대상으로 국어학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르는 의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주기도문의 사동문과 관련하여 교인들이 실제로 이 구절을 어떻게 암송하고 있는지 또 이 구절에 대한 의미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국어학적인 검토에 의하면, 이 구절의 피사동주는 ‘우리’이며, 주격조사 ‘-가’가 아닌 대격조사 ‘-를’로 번역됨으로써 사동주인 하나님께서 사동행위인 ‘시험에 들다’에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 또 사동행위에 대한 표현을 ‘유혹’으로 번역할 것인가 ‘시험’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으나 ‘시험’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한국어의 단어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 하다’ 사동구문의 경우, 이전 번역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말게) 하다’ 구조였던 것이 최근의 『개역개정』에 이르러 ‘시험에 들게 하다’ 구조로 번역됨으로써 사동주인 하나님의 사동행위가 상반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의미 구조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신학계를 중심으로 상반된 의미구조 중 하나의 번역을 선택해서 일치된 번역본으로 주기도문 암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번역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 구절의 의미를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교인들은 세 가지 이상의 형태로 암송하고 있으며, 동일한 형태로 암송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구절에 대한 의미 이해가 서로 달라서 사동문 구절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교차비교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는 주기도문 암송 구절의 의미와 평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번역상의 문제가 신학적인 논의에서 나아가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일치된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국어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성서의 본문 구절이 번역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 구절과 관련하여 교인들의 의미 이해를 조사함으로써 현장의 상황을 보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문 검토나 신학적 관점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성서 번역에서 국어학적 지식과 이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얻게 된 또 하나의 소득은 교인들에게 한국어 성서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번역상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교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상당히 흥미롭다는 반응

을 보여주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교인들에게 성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에 따른 의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의를 추가할 수 있겠다.

<주제어>(Keywords)

주기도문, 성서번역, 국어학, 사동문, 암송.

The Lord's prayer, Bible translations, Korean linguistics, Causatives, Recitation.

(투고 일자: 2016년 7월 27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영봉, “정훈택 교수의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번역하며’에 대한 논찬”, 『성경원문연구』 8 (2001), 97-105.
- 김영희, “-게 하- 사동구문의 세 유형”, 『어문학』 54 (1993), 89-120.
- 김윤신, “국어 사동문에 나타난 사동 행위의 직·간접성 -사동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0 (2012), 111-144.
- 김창락, “주기도문의 번역과 주석상의 문제점”, 『성서한국』 38:1 (1992), 25-31.
- 김창락, “주기도문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8 (2001), 7-24.
- 나채운, “주기도문의 번역상의 문제점”, 『성경원문연구』 8 (2001), 31-43.
-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탐출판사, 1989.
- 민영진, “현대의 번역이론에서 본 주기도 번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8 (2001), 77-96.
- 박소영, “한국어 통사사동의 세 유형”, 『현대문법연구』 74 (2013), 59-76.
- 박정운, “한국어 사동 구문의 의미-원형의미론적 접근”, 『언어』 28:3 (2003), 345-372.
- 박창해, “<주기도문>의 통어구조-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성서한국』 38:1 (1992), 10-24.
- 송성진, “주기도문의 신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78 (2013), 81-111.
- 이숙, “-게 하다’ 사동구문의 통사적 분석”, 『語文學論叢』 26 (2007), 291-309.
- 이익섭, 임홍빈,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1990.
- 정길남, “주기도문에 쓰인 우리말 연구”, 『국어국문학』 111 (1994), 85-107.
- 최현철, 『사회통계방법론』, 파주: 나남, 2010.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대한성서공회, 정보참고,
http://www.bskorea.or.kr/infobank/foreignSearch/bibsearch_main.aspx.

<Abstract>

A Korean Linguistic Approach to the Causative of the Lord's Prayer

Hyeyoung Je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causative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Lord's Prayer in terms of Korean linguistics, and at investigating how Christians recite the clause and understand its meaning. According to Korean linguistics, the sixth petition of the Lord's Prayer indicates that God as a causer is involved in a causative action of a 'test' by translating a causee of the clause as 'we' and using accusative case '-reul' instead of nominative case '-ka'. In addition, although there had been a long debate about whether the expression regarding the causative action should be translated as 'temptation' or 'test', it can be observed that the term 'test' became established as the Korean expression given its long-lasting use in the Korean church. In the case of the causative '-kae hada', 'lead us not into temptation' has been translated to the structure, 'lead us into temptation'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indicating a conflicting meaning structure compared to the previous version of the Lord's Prayer. In other words, the causative action of the causer 'God' has a contrary meaning according to different versions of the Bible.

This study surveyed 132 Christians to examine how the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claus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more than three versions of this clause being recited by the respondents. Furthermore, the respondents do not grasp the meaning of causative clause that they recite becau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lause varies, even when they are reciting the same version. The result of the chi-squared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the clause which the respondents understand in the Lord's Prayer and the expression regarding God that they have been thinking about, a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is high.